

# 학술지 논문의 결론 구조 경향 분석

## Analysis of Research Article Conclusions

김갑선,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kapskim@jwu.ac.kr

Kapseon Kim, Faculty of Liberal Arts, Jungwon University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장(chapter)의 특색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론의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결론의 구조와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문정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장은 평균 4.2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었다. 결론 제목은 '결론'이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은 '결론 및 제언'이었다. 각 구성요소별 출현빈도는 '연구결과 요약'이 단연 우세하며, '연구전체 요약', '후속연구 제언', '연구 의의' 순이었다. 서술 분량은 '연구결과 요약'이 가장 우세하며, 결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요소로 가장 우세한 요소는 '연구결과 요약'이며, 결론을 마무리하는 최종 요소로 가장 우세한 것은 '후속연구 제언'이었다.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핵심기능은 '요약하기'의 구성요소인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전체 과정 요약'이다. 이는 결론을 기술하는데 필수 요소로 밝혀졌다. '적용하기', '확대하기'에 포함된 여타의 요인은 선별적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 1. 서론

논문은 학술공동체에서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학술 논문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정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대표적인 표준체제가 과학적 연구의 논리적 절차에 따른 IMRAD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형식이다. IMRAD 형식은 실증학문분야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과학성을 표방하는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적용하는 논문 구조이다.

학술 논문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초록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대표성과 중요성 때문에 주로 초록을 대상으로 정보검색적, 서지학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왔다(장혜란 1996; 장우성 2016; Eungi Kim 2014). 국내외 응용언어학 분야는 학문적 텍스트의

장르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 장르분석은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외국어 쓰기 능력을 향상하고자 소량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의 일부분(초록, 서론, 연구방법, 결과, 결론 등)을 대상으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범주(무브)와 구조를 제시하여 왔다(Hewing 1993; Yang & Allison 2003; Bunton 2005; Bitchener 2010; Soler-Monreal 2015). 국내 연구는 유학생을 위한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교육 방안으로 주로 국내 석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왔다(이주희 2012; 서지혜 2012; 박지희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논문의 구조 중 결론 부분의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결론 장(chapter)은 논문의 종결부로서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논문에서 초록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또한 학술논문의 구조적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부분의 특색을 분석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분석 대상 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4종의 2016년 게재된 실증적 경험적 논문이며, 한국어로 기술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결론 부분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22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11개의 결론 구성 요소를 다섯 개로 범주화하여 결론의 구성 범주로

도출하고, 본 연구의 결론 분석 도구로 적용하였다(표 1).

## 3. 분석 결과

분석대상이 된 4개 학술지 실증적 논문의 수는 222편이며(표 1), 결론의 총 분량은 9,404줄이며 평균은 42.3줄이다. 이는 한 논문에 결론 부분이 평균 약 한 쪽 및 10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 부분 전(前) 장의 제목은 주로 ‘분석’(63편, 28.3%)과 ‘결과’(54편, 24.3%)이다. 연구결과 제시가 절반 이상(117편, 52.6%)을 차지하였다. 결론 부분 전(前)장에서 ‘논의’관련 제목은 소수(18편, 8.1%)에

<표 1> 결론 구성요소의 출현 빈도 (n=222)

구성 범주	출현빈도							
	학술지명 ----- 구성요소	문헌	도정	비블	정보관리	계	%	% (n=222)
연구관심 끌어내기	탐구주제 현황	12	16	13	6	47	5.0	21.1
	필요성	18	19	11	0	48	5.1	21.6
	개념	2	7	4	5	18	1.9	8.1
	소계	<b>32</b>	<b>42</b>	<b>28</b>	<b>11</b>	<b>113</b>	<b>12.5</b>	<b>50</b>
요약하기	연구 전체 요약	58	56	41	44	199	21.3	89.6
	연구 절차	5	4	3	4	16	1.7	7.2
	연구 결과 요약	61	59	42	48	210	22.5	94.5
	소계	<b>24</b>	<b>119</b>	<b>86</b>	<b>96</b>	<b>425</b>	<b>45.5</b>	<b>191.4</b>
논의하기	논의	11	4	5	13	33	3.5	14.8
	소계	<b>11</b>	<b>4</b>	<b>5</b>	<b>13</b>	<b>33</b>	<b>3.5</b>	<b>14.8</b>
적용하기	연구 의의	29	27	19	26	101	10.8	45.4
	연구 적용	24	14	13	13	64	6.8	28.8
	소계	<b>53</b>	<b>41</b>	<b>32</b>	<b>39</b>	<b>165</b>	<b>17.6</b>	<b>74.3</b>
확대하기	연구 한계	26	12	14	21	73	7.8	32.8
	후속연구 제언	33	42	26	22	123	13.1	55.4
	소계	<b>59</b>	<b>54</b>	<b>40</b>	<b>43</b>	<b>196</b>	<b>21.0</b>	<b>88.2</b>
계		<b>279</b>	<b>261</b>	<b>191</b>	<b>202</b>	<b>933</b>	<b>100</b>	<b>100</b>

불과하였다. 결론 부분의 제목은 ‘결론’이 절반 이상(115편, 52.8%), ‘결론 및 제언’ (60편, 27.0%) 이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결론의 각 구성요소별 총출현빈도(n=933)와 총논문(n=222)내 출현 비율을 살펴보면, ‘연구결과 요약’이 210회 출현하여 단연 우세하였다. 이는 총출현빈도의 22.5%이며, 총논문에서 94.5%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전체 요약’ (199회, 21.3%, 89.6%), ‘후속연구 제언’ (123회, 13.1%, 55.4%), ‘연구 의의’ (101회, 10.8%, 45.4%)순 이다. 상위범주별로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상위범주는 ‘요약하기’ (425회, 45.5%)이다. 그 다음으로는 ‘확대하기’(196회, 21.0%)이며, ‘적용하기’(165회, 17.6%)이며, ‘연구관심 끌어내기’ (113회, 12.1%), ‘논의하기’ (33회, 3.5%, 14.8%)순 이다. 결론의 구성요소별 서술 분량(줄)은 ‘연구결과 요약’의 서술분량(4,477.5줄, 47.6%, 20.1줄)이 단연 우세하다.

#### 4. 논의

전통적 논문작성법에 따르면 결과(Result) 부분에서는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fact)만을 해석 없이 제시하고 논의 부분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관련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결론 전(前) 장의 제목이 ‘논의’가 아니라 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분석’(63편, 28.3%)과 ‘결과’(54편, 24.3%) 라는 것은 독립된 장으로써 ‘논의(Discussion)’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논문 구조에서 결과, 논의, 결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문헌정보학 논문 구조의 특징이자 취약점으로 거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요약(210회, 94.5%)’ 은 출현 빈도 면과 분량면에서 단연 우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결과 요약’은 20.1줄로 결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결론 분량의 절반 이상은 연구결과를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나열하여 제시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문헌정보학 결론 구성의 한 특징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결론 구조 유형으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유형은 ‘연구전체 요약-연구결과 요약’ 순으로 기술하는 유형(107편, 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결론의 주 기능이 ‘요약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결론의 주요 역할을 연구 결과의 전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분석결과 상위범주 ‘요약하기’에 포함된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전체 요약’(199회 89.6%)은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자 결론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의의’, ‘연구 한계’, ‘연구 적용’의 제시 등은 문헌정보학 논문 결론 부분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수적 기능이지만 선택적,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실증적 논문을 분석하여 결론 구조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학술지논문 결론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약하기’범주의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전체 과정 요약’이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결론 구조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핵심 기능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론을 기술하는데 ‘연구결과 요약’과 ‘연구전체과정 요약’이 필수 요소라는 것이며, 여타의 결론 구성 요소는 선별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의 전체 구조에서 결과, 논의, 결론의 특성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지희. 2016.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경영학 학위논문의 장르분석: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지혜. 2012. 『한국어 학위논문 결론의 장르 분석: 한국어 학술논문 결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주희. 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장우권. 2016. 초록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3(3): 107-131.
- 장혜란. 1996. 한글초록의 현황과 내용 분석: 사회과학분야 저자초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5-48.
- Bitchener, J. 2010. *Writing and Applied Linguistics Thesis or Dissertation: A Guide to Presenting Empirical Research*.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Bunton, David, 2005. "The Structure of PhD Conclusion Chapte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4(3): 207-224.
- Hewing, M. 1993. The End! How to Conclude a Dissertation. In G. M. Blue (Ed.), *Language, learning and success: Studying through English*.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 and The British Council, Macmillan.
- Kim Eungi.2014. "An Analysis of Move Patterns in Abstracts of Social Sciences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283-309.
- Luciana B. Sollaci, and Mauricio G. Pereira, 2004. "The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IMRAD) Structure: A Fifty-Year Survey." *J Med Libr Assoc*. 92(3): 364-371.
- Soler-Monreal, Carmen. 2015. "A Move-Step Analysis of the Concluding Chapters in Computer Science PhD Theses." *n Europea de n Europea de Lenguas para Fines Espec. IBERICA*, 32: 105-132. <<http://www.redalyc.org/html/2870/287048507006/>> [cited 2017.07.30.].
- Swales J. M., & Feak, C. 2004.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Essential Tasks and Skill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Yang, Ruiying and Desmond Allison. 2003. "Research Articles in Applied Linguistics: Moving from Results to Conclusion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2: 365-385.